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Q

→

+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학원
5% 할인
학원/안경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체이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 08 Vol. 81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81**
2025. 08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홍보 본격적으로 시작

금빛 훈련일지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

함께하는 부산체육
유연유

FIN SWIMMING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8 Vol. 81

발행일 2025년 8월 14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1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Instagram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홍보 본격적으로 시작
-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김수현 회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성남초등학교 농구부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스포츠의 열기, 도시의 숨결 속으로 사상구 & 기장군
- 22 Sports is Busan
2025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
- 26 전국체전 trivia
새천년 전국체육대회, 스포츠 인프라와 지역문화 발전이 함께한 무대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유앤유

하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
-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겸
제33회 전국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
- 38 종목 소개
핀수영
- 42 스포츠&컬처
V리그 연대기 둘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 개최
-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겸 육상 프레대회 개최
- 2025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인



10 금빛 훈련일지



22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홍보 본격적으로 시작

부산광역시 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찾아가는 구·군 홍보 설명회’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구·군 홍보 설명회’는 그 일환으로, 전국체육대회 관계자가 직접 구·군 회의장을 방문해 대회 개요 및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내는 것과 더불어 쌍방향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찾아가는 구·군 홍보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모집, 성화 봉송 등 시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회 관련 정보 공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앞으로 이어질 설명회가 전국체육대회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손태욱 체육국장은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설명회를 통해 각 구·군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전국체육대회 붐 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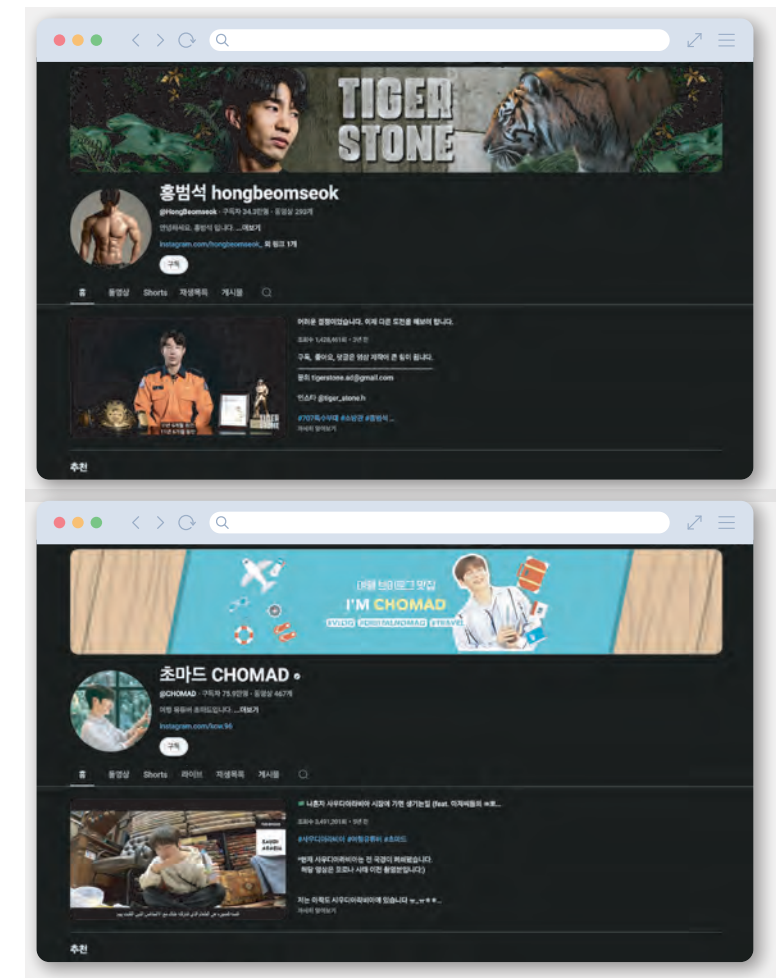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는 스포츠 유튜버 ‘홍범석’과 여행 유튜버 ‘초마드’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유튜버 홍범석과는 함께 달리기 잘

은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영상 ‘전국체전 육상선수과 대결!! 얼마나 차이 날까??’를 제작하였다. 영상은 청사포정거장, 그린레일웨이, 다릿돌전망대 등 부산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하며, 부산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동아대학교 육상선수들과 박진감 넘치는 대결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아내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 수 4만 4천 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유튜버 초마드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들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를 모아, 여행지와 명소,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홍범석(유튜브 구독자 32.9만 명)은 2018년 세계소방경기대회 ‘최강소방관’ 챔피언, ‘피지컬 100(시즌 2)’ 준우승에 올라 세계 1등 소방관으로 불리고 있으며, 유튜버 초마드(유튜브 구독자 76.1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12.4만 명)는 2025년 채널 에스(S)의 여행 예능 ‘우리 지금 만나’에 출연, 다양한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며 여행의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 관광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알리는 한편,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빛나는 100년 역사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김수현 회장



BADMINTON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 안세영을 비롯해 서승재, 김원호 등의 배드민턴 스타를 보유한 부산은 명실상부한 배드민턴의 성지로 꼽힌다. 미래지향적 협회 운영을 통해 부산 배드민턴협회의 50주년, 나아가 100년 역사를 준비하는 김수현 회장을 만나보았다.

동네 뒷산에서부터 이어진 35년의 인연

“1990년 무렵, 동네 뒷산에서 처음 시작한 배드민턴을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2025년부터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 김수현 회장의 소회다. 햇수로 35년이 넘는 시간, 인생의 절반을 배드민턴과 함께한 만큼 그의 배드민턴 사랑은 남다르다.

“약수터에서 친구와 배드민턴을 처음 할 당시에는 배드민턴을 대부분 실외에서 즐겼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실내 코트가 적었기 때문에 뒷산이나 공터,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같은 곳에서 라켓을 휘두르곤 했죠.”

운동이 전부가 아니다, 배드민턴의 매력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40년 구력의 김 회장이 생각하는 배드민턴의 매력은 무엇일까?

“배드민턴은 보기와 달리 아주 격한 운동입니다. 아마 실내 종목 중 농구 다음으로 체력 소모가 클 겁니다. 진입장벽은 낮지만, 숙달되고 경기에서 통할 기량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동호인들은 자신과 동료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운동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김 회장이 꼽는 배드민턴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여/단식/복식의 다양한 세부 종목이 있는 덕에 동호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것도 장점이다.

“운동을 통해 경쟁하면서 화합과 통합을 함께 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배드민턴의 참매력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배드민턴

배드민턴 사랑이 남다른 그는 부산의 배드민턴 인프라 조성에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비교적 친숙한 종목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

로 즐기 위한 공간은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고민이다.

“부산 16개 구·군에는 188개 생활체육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12,000여 명에 달하는 등록 회원이 있습니다. 클럽에 등록되지 않은 체육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20,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 인구가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강서구와 금정구에 배드민턴 전용 시설이 있지만, 배드민턴 인구를 생각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의견을 밝힌 김 회장. 실제로 20,000여 명의 동호인 대부분은 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의 동호인들은 대통령기전국배드민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량이 뛰어나고,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특별합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 배드민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

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은 보기보다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특히 무릎 쪽에서 통증이 시작되면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정적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빈자리를 2030 동호인들이 채우고 있어요.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한 덕분이기도 하고, 특유의 커뮤니티 기능 덕분에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김 회장을 비롯한 고문단과 협회 임직원들은 이런 분위기를 반긴다. 종목 자체가 젊어지는 추세 속에서 최근 청년부 시합에는 예년 대비 20% 이상 많은 인원이 참가해 밤 9시가 지나서야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부산 배드민턴의 미래를 그리다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청소년 선수를 전문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 커리큘럼 덕분에 선수들은 동의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등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부산외국어대



학교 여자대학부 선수들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자타가 공인하는 배드민턴 성지답게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와 같은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한 부산. 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김 회장은 좀 더 먼 곳을 내다본다.

“내년은 우리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유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코리아 오픈을 유치해서 진행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한 대회인 만큼 당장 유치하긴 어렵겠지만, 제 임기 내에는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기, MBC대회, 부산광역시장기 등 지역대회에도 심혈

을 기울여 더 나은 대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코리아 오픈을 목표로 부산 배드민턴의 발전을 도모하다 보면 앞서 언급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김 회장은 믿는다. 반평생을 배드민턴과 함께한 그는 회장으로서의 다짐과 부탁의 말을 남겼다.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부산의 긍지를 살리고 동호인들이 더욱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협회장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동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지향적 협회 운영을 통해 50주년을 넘어 60주년, 100주년까지 이어지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베테랑과 신예의 조화, 다시 뛰는 부산 핸드볼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

2024-25 H리그에서 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고, 적극적인 리그 홍보와 통통 튀는 팬 이벤트로 ‘베스트팀상’까지 거머쥔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 10년간 코치로 함께해 온 신창호 감독의 부임과 세대 교체, 베테랑 선수들의 합류로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맨 그들을 만나보았다.



“빠르게, 그리고 단단하게” 신창호 감독의 팀 리빌딩

지난해 8월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의 사령탑에 오른 신창호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4강 진출과 2014 세계주니어선수권 대회 우승에 기여하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다. 부산시설공단과는 2014년 코치로 인연을 맺은 후 어느덧 11년째 함께하고 있다. 팀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온 그는 오늘날 팀의 가장 큰 변화로 ‘승리에 대한 열망’을 꼽는다.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지는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경기를 쉽게 포기하려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체육회와 공단의 도움으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기존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에게 자극을 받아 동기부여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강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팀은 지난해부터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며, 플레이에 속도를 더했다. 올해는 베테랑 선수들을 보강해 ‘빠른 핸드볼’의 리듬을 능숙하게 조율하는 팀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 결과, 신 감독 부임 첫해인 2024-25 H리그에서 팀은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최종 3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기복 있는 시즌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선수들을 믿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함께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은 사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시즌을 치르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기력은 점점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뭉쳐줬기에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죠.”

신 감독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어떤 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우승을 노릴 수 있도록 선수들을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리그에서는 체력 안배와 부상 방지를 위해 모든 선수를 고루 활용하는 ‘토탈 핸드볼’을 추구하지만, 단기간의 경기력이 순위를 좌우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전략을 달리한다. 교체를 최소화하고 베스트 멤버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정예 선수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전국체육대회 우승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분위기도 좋고, 훈련과 경기에 임하는 자세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 흐름을 잘 이어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창호 감독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부산시설공단은 시설 관리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편리한 체육시설과 스포츠 선수단 운영을 통해 지역 체육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은 뛰어난 실력은 물론 인성과 책임감까지 갖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선수들이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한 일 역시 일회성 미담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공단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쾌적한 훈련 환경은 물론 심리상담·영양관리·재활 훈련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소년 연계 육성과 지역 팬층 확대를 통해 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은 큰 영광이자 기회입니다. 공단은 경기장 시설 관리뿐 아니라,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핸드볼팀 선수들 또한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팀워크를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드리며, 최고의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내공으로 다진 부산의 든든한 날개, 정가희 선수

정가희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부산시설공단 팀에 입단해, 올해로 10년째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신장이 큰 선수들 사이에서 더욱 기민한 움직임 앞세워, 팀의 빠른 공격을 이끄는 레프트윙 포지션을 맡고 있다.

“경기를 할 때 초반 5분과 후반 5분에 가장 집중하려고 해요. 특히 초반에 흐름을 잡는 게 심리적인 압박을 덜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승리는 달콤하지만, 그중에서도 뒤처지던 경기를 한 골 한 골 따라잡아 역전으로 마무리할 때가 가장 짜릿하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정 선수의 선제골로 경기의 문을 열었던 이번 시즌 H리그 준플레이오프에서, 팀은 종료 10초 전 터진 결

승골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그 짜릿함을 몸소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시즌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던 시간이었다.

“꽤 오랜 선수 생활 동안 큰 부상 없이 잘 지나왔는데, 이번 시즌에는 부상으로 리그를 온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래도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기쁩니다.”

정 선수는 부산시설공단이 과거에는 선수 경력 중심의 기용이 많았다면, 지금은 경기력과 상황에 따라 고르게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팀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팀에 대한 애정과,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에 힘이 되어준 감독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감독님은 늘 선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함께 팀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팀은 각 선수의 강점을 조화롭게 엮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가희 선수 역시 부상을 딛고, 팀의 날개로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곁을 지켜주고, 제 투정도 다 받아준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후배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가끔은 모난 말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해 줘서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친정집으로 돌아온 에이스, 권한나 선수

대한민국 핸드볼의 간판이자, 남녀를 통틀어 국내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권한나 선수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무대는 단연 2012 런던 올림픽이었다. ‘죽음의 조’라 불렸던 조별리그에서 2위로 8강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맞붙었고, 경기 종료 약 5분 전 동점 상황에서 터진 권한나 선수의 득점은 팀을 4강으로 이끄는 게임체인저였다.

“23살, 그때는 겁도 없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든 다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런 자신감으로 역전승을 거둔 그 경기가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설공단 소속으로 활약하며, 국내 핸드볼 사상 첫 1,000득점을 달성했던 권한나 선수는 3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땀 때 좋은 기억도 많아서 복귀를 결심하게 됐죠.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친정집에 돌아온 기분으로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베테랑다운 경기 조율 능력과 안정감 있는 플레이에 기대를 모으며 복귀한 그녀는, 이번 시즌 H리그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권 선



수는 시즌 초반 팀과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아 아쉬움도 남지만, 시즌을 치르며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한 데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전했다.

과거 함께했던 익숙한 얼굴들도 있지만, 이제는 팀의 최고참으로서 후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한 팀으로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1,439골을 기록 중인 권 선수는 다음 시즌에서 1,500득점 달성을 목표로 삼는 한편, 후배들과 핸드볼계 전체를 위한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현역으로 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언니, 좋은 선배로서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 핸드볼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코트 위 거침없는 질주,

우리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

성남초등학교 농구부

BASKETBALL



지난해부터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던 성남초등학교 농구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마침내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룬 주인공들을 만나 보았다.

선수, 학부모, 학교의 힘이 중요

방과 후, 농구장에 모인 선수들은 오후에 있을 연습 경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코치와 교사 외에도 선수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학부모들이었다. 성남초등학교 농구부는 선수끼리는 물론이고 학부모 모끼리도 사이가 좋다고.

“제가 코치를 맡고 나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은메달, 동메달은 따봤는데,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금메달은 하늘이 정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수, 학부모님, 부장님, 저, 학교의 지원까지 힘이 잘 맞았어요. 그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로 활동하다 은퇴 후 선배의 권유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허진성 코치.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기까지 자신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기에 용기를 냈다. 그가 처음으로 코치 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성남초등학교인데, 2013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훈련 방식이 성인과 달라야 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선수가 3명 밖에 없었어요. 농구는 5명이 돼야 하잖아요. 선수 수급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시다.”

현재 성남초등학교 농구부는 6학년 7명, 5학년 2명, 4학년 1명, 3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허진성 코치가 스카우트한 선수들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올해 선수들이 스피드, 볼 다루는 능력 등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뛰어나다고. 한편으로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다.



“농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이잖아요. 혼자 돋보이고 싶어 하는 아이는 조금 자중시키고, 반대로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회를 주곤 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팀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단합력은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전에서 빛을 발했다.

우승의 결정적인 요인, 응원

사실 성남초등학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었다. 작년부터 출전한 전국 대회마다 3위 이상의 순위에 오르며 실력을 검증했기 때문인데,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전에서 고비가 있었다. 대회 준비 과정이나 대회 중에 부상을 입은 선수가 많았던 데다 상대와 점수 차가 나며 지기 시작하자 에이스 선수의 경기력이 흔들렸던 것.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입은 선수 뒤편까지 더 열심히 뛰어주었고, 에이스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려 힘을 모아 무려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농구부가 작년부터 성과를 보인 데에는 많은 이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최우철 부장 교사는 직접 응원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간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농구부 소식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농구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변상돈 교장은 조퇴 시간에 선수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며 응원을 독려하였고,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난 후 학교로 돌아온 선수들을 전교생이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였다.

성남초등학교 농구부는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허진성 코치에게는 또 다른 바람이 있다.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와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기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와 함께 한 훈련이 훗날 선수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엇보다 부상 없이 즐겁게 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뛰어주고 바르게 자라주는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MINI INTERVIEW

변상돈 교장

우리 학교 농구부는 1997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 2021년 대한농구협회장배 농구대회 우승 이후 사실 이렇다 할 전성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농구부의 활약이 학교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덕장(德將)이신 허진성 코치님과 최우철 부장님께서 선수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아이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성적이 안 좋을 때도 거기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으

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바르게 자

라며 운동을 열심히 한

다면 자신이 하고 싶

은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테니 모두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김서진 선수(6학년, 슈팅 가드)

농구부가 경기하는 걸 보니 재밌어 보였어요. 4학년 때 농구부에 들어와 농구를 시작했고, 농구 선수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함께하니 재미있고 슛이 잘 들어가면 정말 짜릿해요. 매일 다 같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전지훈련도 다녀온 덕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메달을 땀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드리블과 슛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슛을 넣어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합을 맞춰 다음 종별 대회에서도 우승하겠습니다!



조민준 선수(6학년, 포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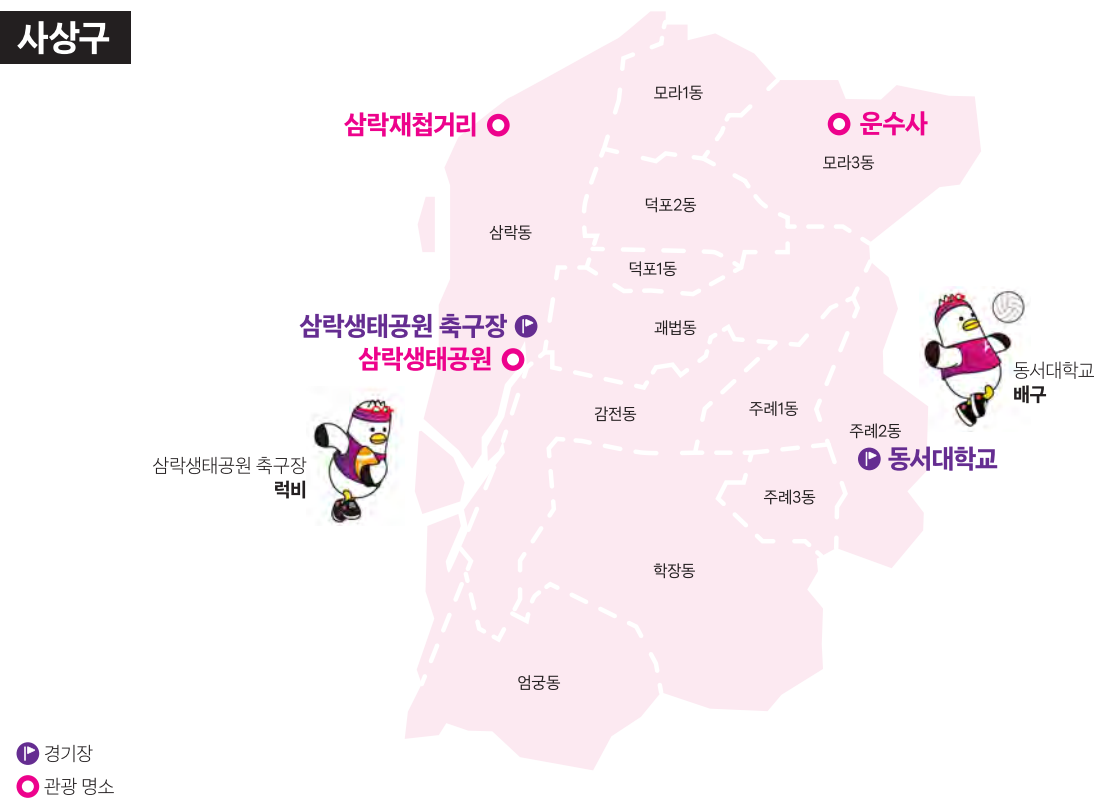
먼저 농구를 시작한 형을 따라 일곱 살 때 농구 클럽에 다니다가 엘리트로 오게 됐어요. 농구는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가 참 매력적이에요. 빠르게 드리블하며 달리며 상대를 모두 따돌렸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훈련을 한 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3위를 해본 적은 있는데, 우승은 처음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고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승을 한 거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스포츠의 열기, 도시의 숨결 속으로

사상구 & 기장군

사상구



강과 생태, 도시가 어우러지는 스포츠의 무대

사상구의 삼락천연잔디축구장과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각 럭비와 배구 경기가 펼쳐지는 주요 경기장이다. 삼락천연잔디축구장은 낙동강 하구 둔치에 위치한 삼락생태공원 내에 있으며, 습자·조류 서식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179호 구역을 포함한 610,000m² 규모의 공간에 조성된 종합 생태·체육시설이다. 축구장 외에도 자전거도로, 산책로,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마련돼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기는 자연 속 스포츠 명소로 자리잡았다.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잔디와 시설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완성도 높은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배구 경기가 열리는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는 2,000석 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펼쳐지는 부산. 경기장 안의 함성과 더불어, 그 밖에서 만나는 도심과 자연, 문화의 풍경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사상구와 기장군, 두 도시의 길을 따라 특별한 부산의 속살을 만나보자.

도심 속 생태문화가 흐르는 사상의 길

사상구는 체육과 생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전국체육대회 관람 이후 여유롭게 들를 수 있는 명소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사상구를 대표하는 삼락생태공원, 운수사, 그리고 재첩의 향수를 간직한 삼락재첩거리까지. 도시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간을 따라 걸어보자.



1. 수려한 풍광과 문화유산의 만남, 운수사

모라동에서 백양산 터널 위 산길을 따라 오르면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산중턱에 자리한 운수사를 만날 수 있다. 사상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운수모종'의 전통을 이어온 이곳은 보물 제1896호 운수사 대웅전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92호 석조여래삼존좌상을 품고 있다. 아름다운 풍광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사찰로, 고즈넉한 산행과 함께 마음의 쉼을 찾기에 제격이다.

2. 철새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 삼락생태공원

사상구 삼락동 낙동강 둔치에 자리한 삼락생태공원은 총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상단부와 중앙부에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자전거도로 등 시민 체육시설이, 중단에는 갈대와 갯벌들 군락이 어우러진 자연초지가, 하단부에는 철새가 찾아오는 갈대습지가 펼쳐진다. 각종 체육대회와 축제, 생태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공원은 도시 속 자연과 문화를 잇는 대표적인 복합 휴식처다.

3. 재첩국의 추억이 살아 있는 골목, 삼락재첩거리

사상구 삼락동의 재첩거리는 낙동강 재첩의 명성을 계승하는 곳이다. 1970년대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재첩잡이는 사라졌지만, 재첩국을 삶고 팔던 '재첩국 아지매'들의 외침과 맛은 지금도 이 골목에서 살아 숨신다. 지역 주민들의 소울푸드로 자리잡은 재첩국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향토음식의 상징이며, 전국체전 기간 중 이 지역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기장군

- ▶ 경기장
- 관광 명소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스포츠의 현장

기장군에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축구, 골프, 야구소프트볼, 탁구 경기가 열린다. 축구 경기는 일광읍 동백리에 위치한 기장군월드컵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약 14만m²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이곳은 천연잔디장, 인조잔디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지역 스포츠의 중심지다. 특히 인조잔디 축구장은 최첨단 시설을 갖춰 사계절 내내 쾌적한 경기 환경을 제공하며, 유소년 리그와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축구 꿈나무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에도 지역 주민과 전국 체육인이 함께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골프 종목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된 이곳은 세계적 골프장 설계가 페리 오

다이(Perry O. Dye)의 기본설계로 명성이 높은 명문 골프장이자 27홀 규모의 코스는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구성으로 국내외 프로 대회를 다수 유치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KPGA 코리안투어도 개최되어 대한민국 남자 골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는 야구소프트볼 경기가, 기장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 경기가 열린다.

동화와 숲, 바다가 머무는 기장의 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기장군은 전국체전의 열기와 함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득하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동화 여행, 대나무숲 사이를 걷는 산책, 바다를 품은 드라마 세트장까지, 기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1. 동화 속 여행을 떠나는 가족 체험지, 안데르센동화마을

숲과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된 안데르센동화마을은 동화 속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대형 야외 동화 놀이터, 연극·뮤지컬 공연장, 디지털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다. 숲속 데크길을 따라 동화 캐릭터들과 함께 걷는 체험은 동심을 간직한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이 된다.



2. 대나무가 속삭이는 영화의 숲, 아홉산숲

400여 년간 남평 문씨 집안이 가꿔온 아홉산숲은 울창한 대나무숲으로 유명하다. <군도>, <대호>, <달의 연인>을 비롯한 다수의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영화 속 장면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이 숲은 기장의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3. 푸른 바다를 품은 낭만 포인트, 죽성드림세트장

2009년 드라마 <드림> 촬영을 위해 조성된 죽성드림세트장은 지금은 드라마보다도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바닷가에 위치한 유럽풍 건물과 세트장은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근 월전할어판매장에서는 싱싱한 장어구이를 맛볼 수 있다. 해안 드라이브와 함께 기장의 바다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다.



2025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

다가오는 9월, 부산의 상징적인 해상교량을 배경으로 한

‘2025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하 세븐브릿지 투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투어에 참여하면 자전거를 타고 대교 및 차도 위를 달릴 수 있다.

평소 차량 외 접근이 불가능했던 장소를 달리며, 부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이 투어의 매력이다.

일곱 지역을 횡단하는 자전거 축제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한 자전거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벡스코에서 출발, 7개의 지점을 통과해 광안대교로 복귀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코스는 난이도에 따라 칠칠코스(77km)와 삼삼코스(33km)로 나뉜다. 칠칠코스는 맥도생태공원에서, 삼삼코스는 천마터널에서 각각 회차한다. 칠칠코스 기준, 각 지점은 해상교량 4곳, 지하차도 2곳, 터널 1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교량 4곳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이며, 나머지 3곳은 신선대지하차도, 장평지하차도, 천마터널이다. 특히 칠칠코스에는 아찔한 높이로 유명한 부산항대교의 회전램프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투어는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체육행사가 우열을 겨루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 행사는 완주에 의의를 둔다. 함께 달리는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여행의 동반자가 된다. 차가 아닌 자전거를 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매연 없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경험은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투어에 참가하길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2006. 9. 2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평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전기로 달리는 자전거도 참가할 수가 없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위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유의하며 행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행사 동안 차량이 통제되니 미리 다른 경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

투어에 참여하지 않아도 즐길 거리는 많다. 행사 당일 오전 광안대교 상판 위에서 퍼레이드와 미식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미식 이벤트에서는 미술랭 출신 셰프가 참가하여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사전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1천 500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행사가 진행되는 건 광안대교뿐만 아니다. 벡스코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가족 체험형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 투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즐길 거리가 다양한 만큼 사람들의 기대 또한 크다. 선행 판매했던 얼리버드티켓은 1분 만에 매진될 정도였다. 정규티켓은 7월 22일에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었다. 부산광역시 역시 이 행사에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부산광역시 는 이 행사를 단발적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첫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코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안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해양도시 부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일상의 활력으로, 부산에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부산의 매력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축제로, 부산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새천년 전국체육대회,

스포츠 인프라와 지역문화 발전이 함께한 무대



2000년대 초반의 전국체육대회는 기록을 위한 경기의 장을 넘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생활체육 확산, 스포츠 인프라의 비약적 개선 등 대한민국 체육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전국체육대회는 '경쟁'의 의미를 넘어 '참여'와 '연대', '축제'의 가치로 확장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스포츠문화의 진화를 보여주었다.

참고자료: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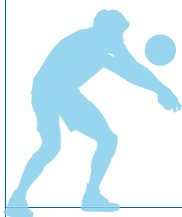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시상 1위 충남(개최지), 2위 서울, 3위 경기

스포츠 인프라의 도약, 새천년의 문을 열다

2000년 제8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서울 태릉에 건립된 국제실내스케이트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무대였다. 이 스케이트장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모두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 여덟 번째로 국제 규격을 갖춘 실내 스케이트장이었다.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훈련이 가능해진 환경은 이후 한국 빙상 종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었고, 이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모태범,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로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리허설 성격을 지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는 마니산, 금강산, 포항 호미곶에서 각각 채화된 '화합의 성화'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이끌어냈다. 이는 전국체육대회가 한민족의 정체성과 희망을 담은 종합축제로 거듭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동력, 지방의 약진

2001년 제82회 전국체육대회는 충청남도 천안을 중심으로 8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경기 운영 방식도 변화가 있었는데, 개최지에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충청남도가 서울 특별시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체육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체육 역량이 반영된 첫 사례로, 지방 체육 발전에 대한 자긍심과 가능성을 크게 고무시켰다. 2002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다. 그해는 동계올림픽, 한일 월드컵,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가 이어진 해로, 전국체육대회는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강화도 대신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성화를 채화한 사례는 성화 봉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되었으며, 제주의 상징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이 같은 분산 개최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다양성을 체육을 통해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생활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

2003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된 제84회 전국체육대회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산악, 바둑이 처음으로 전시종목으로 도입되며 전국체육대회가 전문 선수들만의 무대를 넘어, 생활체육인의 참여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전주한옥마을, 음식축제, 전통혼례 등의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된 체육대회 운영은 지역관광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2004년 충청북도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수상스키, 공수도, 인라인스케이팅 등의 신종목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금강산 성화 채화와 남북 육로 봉송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자원봉사 중심의 운영, 간소화된 개폐회식, 지역 축제와의 연계 등은 경제성과 감동을 모두 충족시키며 전국체육대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이 시기의 전국체육대회는 경기 외적인 감동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체육 행사가 시민 일상의 일부로 스며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

시민이 주인공인 전국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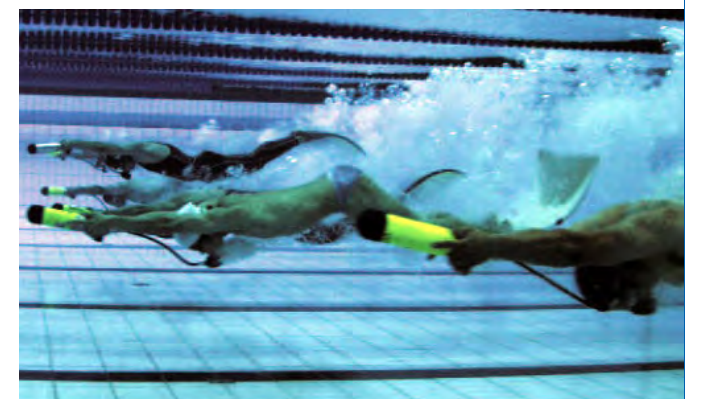
2005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육대회는 '경제와 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운영 방향을 선보였다.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서 조정과 카누 경기가 열려 1만여 명의 시민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진풍경을 만들었고, 울산광역시의 대표축제인 처용문화제, 음식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회로 주목받았다. 경기장은 필수 시설을 신설하고 인근 부산광역시와 창원시의 시설을 공동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국체육대회가 단순히 기록을 다투는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민 생활 속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통합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같은 시기부터 실시된 도핑검사와 국제 경기규정의 도입은 전국체육대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전국체육대회는 점차 스포츠복지의 관점에서도 재조명되며, 단순한 경기 중심의 시스템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인프라의 획기적인 도약, 지방 체육의 약진, 생활체육의 확대, 문화행사와의 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변화와 도전을 거듭했다. 국제 대회에 비해 주목도는 다소 낮아졌을 지라도, 전국체육대회는 지역의 역량을 발굴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민국 체육문화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패러다임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단일한 경기대회를 넘어, 국민 통합과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플랫폼으로 발전해 갔던 것이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은 전국체육대회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체육을 통한 공동체 연대와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최초의 도핑검사 실시





빠른 속도에서 느끼는 무한한 자유와 성취감

핀수영 동호회 '유앤유'

핀수영은 발에 '핀(Fin)'으로 불리는 장비 등을 착용하고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포츠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2000년 제81회 부산 대회부터이다. 역동적 동작이 매력적인 핀수영에 흠뻑 빠진 '유앤유'를 만나보았다.



Q. 유앤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시작한 핀수영 동호회입니다. 사하스포츠클러스터 등에서 연습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이곳 김해스포츠클러스터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해스포츠클러스터는 수심 1.35m, 길이 50m의 레인이 갖추어져 있어 핀수영 연습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곳이지요. 해운대에서 초등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회원 현황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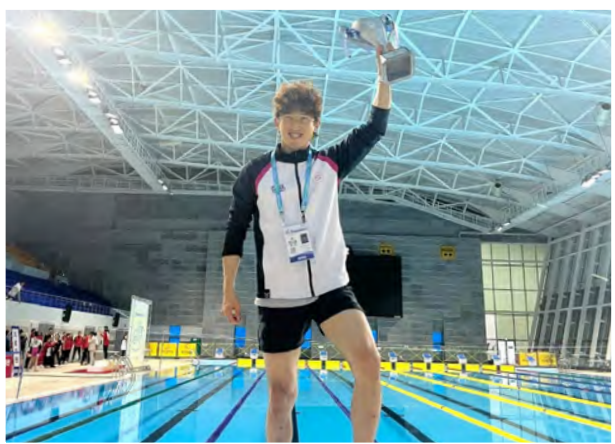
부산, 양산, 김해, 울산 등 다양한 지역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연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핀수영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는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시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수는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40명, 동절기에는 50~60명 정도 됩니다. 하절기에는 실내 수영장보다 바다 수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Q. 연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수영 위주로, 일요일은 수영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합니다. 연습은 '워밍업-메인-쿨다운' 3단계 프로그램으로 나뉘서 단계별로 수영 거리를 다르게 조절해 진행합니다. 핀수영을 할 때는 흔히 오리발로 불리는 '짜핀' 또는 두 발을 하나처럼 만드는 '모노핀'을 착용합니다. 핀수영은 속도가 빠르고 움직임이 커서 상당한 근력이 필요한 스포츠죠. 근력 강화가 실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연습 시간에 비중 있게 근력 운동을 지도하고, 평일에는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Q. 수영을 아주 잘해야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영-배영-평영-자유형 4개 영법은 할 수 있어야 해요. 연습 프로그램이 500m에서 3,000m까지 하도록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핀수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세를 세밀하게 교정해 드리니 장거리에 대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 힘들면 중간에 좀 쉬어도 되죠.



Q. 유탁곤 지도자님은 어떻게 핀수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년 시절부터 수영을 좋아하고 재능도 있어서 엘리트 체육으로 핀수영을 시작했어요.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가 25년 만일 겁니다. 2000년 부산에서 ‘제81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렸을 때 제가 부산 대표로 출전해 800m 금메달을 따고 한국 신기록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산 전국체육대회가 더 뜻깊고 감회가 새롭네요. 2001년 국가대표로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딴 후 같은 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핀수영을 보급하기 시작해 총 24년 지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회원들은 연간 몇 개 대회에 출전하나요?

유엔유 소속으로는 1년에 총 4개 대회에 출전합니다. 실내 대회 3개, 오픈워터(바다, 호수 등) 대회 1개입니다. 그 외 다른 대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얼마 전 열렸던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성인부, 초등부 회원들이 집중력 있게 잘해 주어서 종합 3등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렸던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종합 2위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어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큰 대회에서 연속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너무 뿌듯합니다. 다가오는 8월 31일 경기도 시화호 일대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오픈워터 대회’에 총 28명의 유엔유 회원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MINI INTERVIEW

모노핀 강자, 김도호 회원

유엔유에서 10년 정도 활동한 김도호입니다. 핀수영을 한 지는 총 13년쯤 된 것 같네요. 오랜 기간 수영을 하다 보니 스킨스쿠버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핀수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엔유의 최고 강점은 체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유탁곤 지도자님이 핀수영 전문 선수 출신이다 보니, 핀수영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유에서 활동하며 핀수영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해운대라서 바다에 수영하러 자주 나갑니다. 유엔유에서 같고닮은 실력을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에서 펼치다 보면, 성취감과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23년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수중스포츠대회’ 6관왕은 저한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22년 ‘제27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에서는 제가 모노핀 부문 1위를, 유엔유가 종합 우승을 했었죠. 모노핀은 두 다리가 하나처럼 동시에 움직여야 하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모노핀과 짝핀 수영 모두 좋아하지만, 모노핀은 아직 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연습하는 만큼 결과도 따라주어 좀 더 선호합니다. 핀수영이라는 특별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회원들 사이는 아주 끈끈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대회를 준비하거나 연말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유 주요 연혁
2012	동호회 창단
2013	제5회 밀양강 전국 핀수영대회 준우승
2014	제2회 구미 낙동강 전국 핀수영대회 3위 제18회 회장기 전국핀수영대회 우승
2015	제22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BNK경남은행배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 우승
2016	제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우승
2017	제14회 울산시장배 생활체육 수중핀수영대회 우승
2018	제25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BNK경남은행배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 우승
2019	제21회 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핀수영)대회 우승
2022	2022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 우승
2023	제20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대회 우승 제1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 장거리핀수영대회 우승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수중스포츠대회 우승
2024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우승 제25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수중스포츠대회 준우승
2025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위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류경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이에 맞서 부산 사직에 테니스인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테니스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다. 7월 18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한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남자부 대회)’가 사직 종합 실내 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올빼미 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다소 늦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준세미오픈부 64팀이 참가하였고, 경기는 총 10개의 코트를 사용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많은 테니스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디어에서 테니스 대회 및 선수들의 활약을 자주 보도하고 있고, 테니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니스는 실외 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이다. 특히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경기 시작 전, 이른 시간부터 긴장을 떨쳐내며 몸을 풀기 위해 공을 치고 있는 선수들은 마치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듯하였다. 참가 선수 대부분은 회사에서 퇴근 후 참가한 직장인, 아이들을 돌보다 온 주부, 대학생 등이었다.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일과가 모두 끝난 저녁 시간대에 개최한 올빼미 대회의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오후 6시 30분,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

면서도 틈틈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정확하고 힘 있는 타격과 민첩성이 중요한 테니스의 특성에 걸맞게 박진감 있는 경기가 펼쳐졌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대회였지만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서로의 실력을 칭찬하는 등 결과가 목적이 아닌 ‘테니스’라는 스포츠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는 늦은 밤, 대회가 결승에 다가갈수록 선수들은 체력이 아닌 정신력으로 경기를 치렀다. 누군가는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지기도 하고,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며 서로의 파트너와 의지를 다지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뜨거운 열기 끝에 대회는 마무리되었고 남자 준세미오픈부에서는 정유준·임태우 페어가 우승, 김용찬·강철모 페어가 준우승, 3위에는 김승국·정재욱, 박철형·정성진 페어가 끈기와 좋은 경기력으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과가 끝난 저녁이 되면 대부분 쉬고 싶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휴식 시간을 자신의 취미 생활에 투자해 성취감을 얻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고자 늦은 시간에도 테니스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생활 스포츠가 부산 시민 모두의 일상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대회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한다.



태양 아래 달리고 던지고 뛰며 뜨거운 열정으로 빛났던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겸

제33회 전국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송현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육상경기대회’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프레대회로서, 경기장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실제 대회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든 경기는 전국체육대회와 동일한 종목 및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시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테스트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자 리허설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남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수 약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허들,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등 총 98개 종목으로 진행하였다. 각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참가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투지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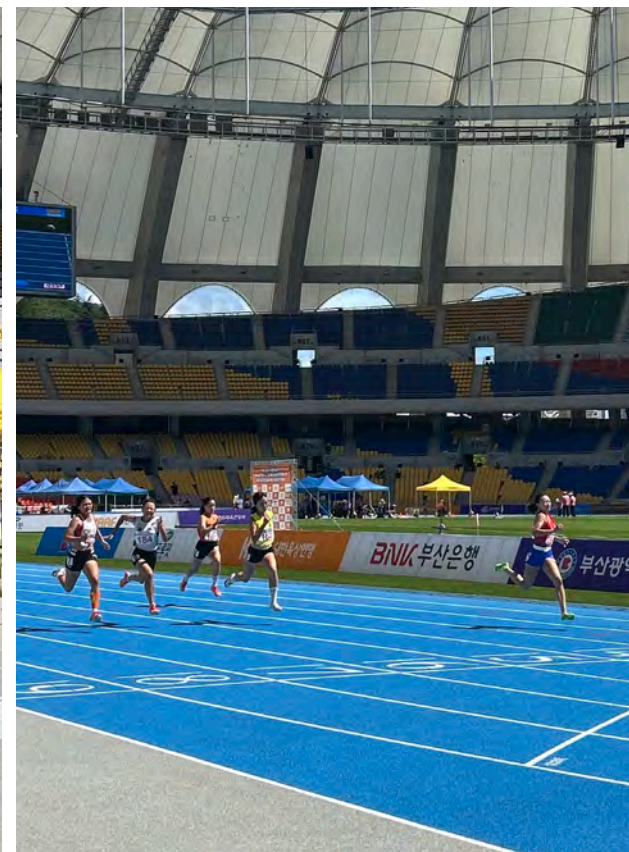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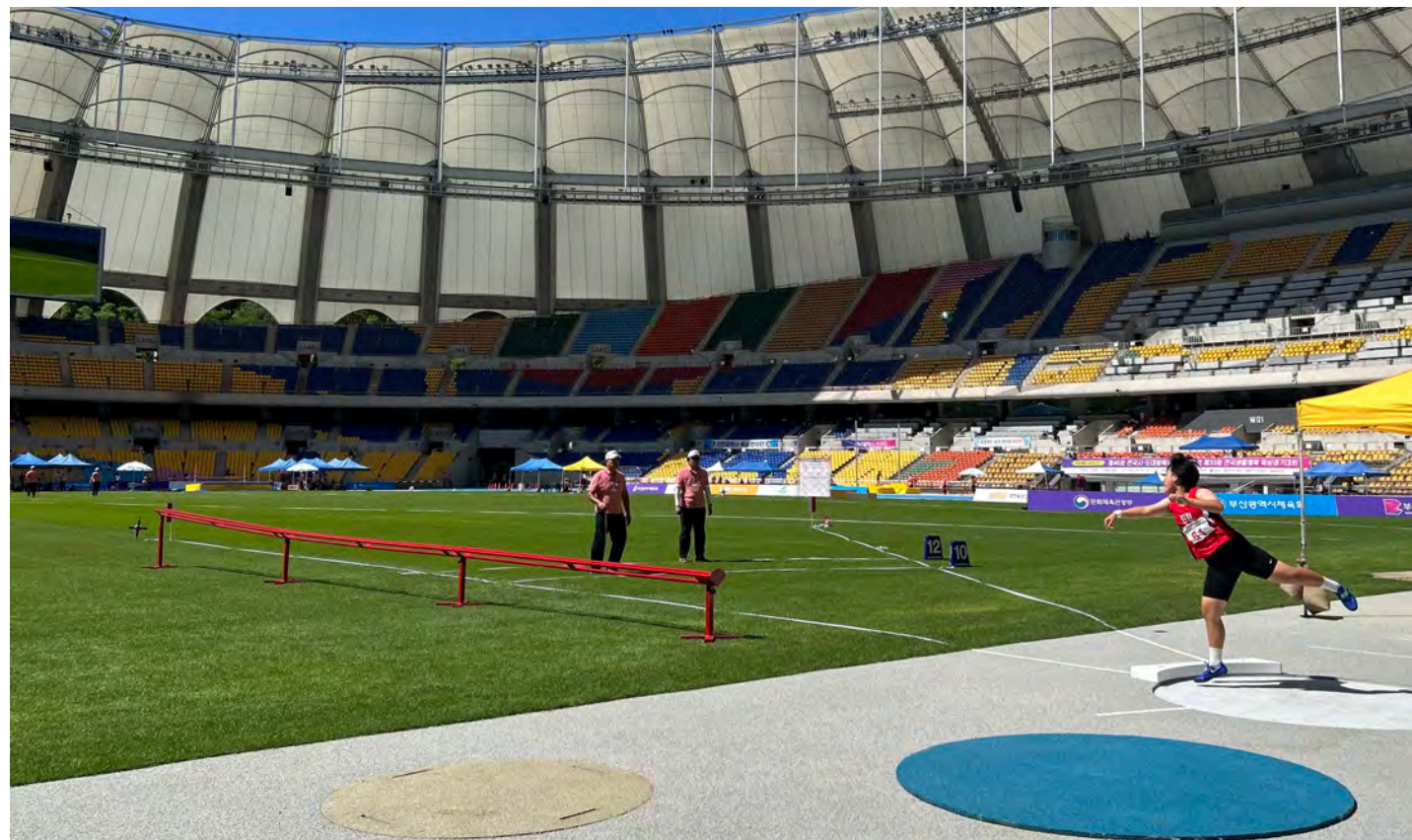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프레대회인 만큼 경기 규정에 있어서 엄격함이 강조되었다. 복장 규정, 광고 위치, 경기화 착용 등과 관

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사전 교육을 통해 규정 위반 시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선수 및 지도자 모두가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회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폭염 속에서도 선수들이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경기 진행 요원들은 규칙 준수와 질서 유지를 바탕으로 원활한 경기 운영에 힘썼다. 이처럼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운영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원활하게 치러졌고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부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안정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잔잔한 물속을 가르는 역동적 스포츠

핀수영

FINSWIMMING



맨몸 수영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감과 효율을 추구하는 스포츠.
한 마리 물고기가 된 듯 핀을 이용해 물속을 유영하는 핀수영은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겨루는 스포츠다.

핀수영의 역사

인간이 물속에 머물며 유영하는 능력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수중 사냥 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나뭇잎을 활용해 일종의 핀(fin: 물갈퀴)을 만들어 사용했다. 1950년대에는 수중 스포츠를 관장하는 각국 협회가 창설되고 1959년에는 국제기구인 세계수중연맹(CMAS)이 창설되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핀수영 경기가 시작되었다. 모노핀의 출현 이전에는 자유형 수영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모노

핀의 개발과 훈련방법 연구를 통해 지금의 핀영법이 정착되었다. 현재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세계장거리핀수영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핀수영선수권대회, 아시아핀수영선수권대회 등의 대회가 각국에서 치러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한국스킨스쿠버다이빙클럽의 창설과 함께 핀수영 보급이 시작되었고 제81회 전국체육대회(2000)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핀수영이란

1m² 정도의 커다란 핀을 발에 착용하고 허리를 움직여 수중을 나아가는 경기이다. 유럽에서 처음 수영의 새로운 경기종목으로서 개발되었다. 1967년, 제1회 유럽선수권대회, 1976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1986년 IOC(국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았다. 세부 종목은 수영장경기, 잠영경기, 장거리경기로 나뉘고 참가 인원수에 따라 개인, 단체, 계영경기로 구분된다. 수영장 경기는 다시 표면경기와 계영으로, 잠영경기는 호흡잠영(스쿠버잠영)과 무호흡잠영경기로 분류한다.

종목별 공인기록 단위

수영장경기

- 표면경기: 50m / 100m / 200m / 400m / 800m / 1,500m / 1,850m
- 계영: 4×100m / 4×2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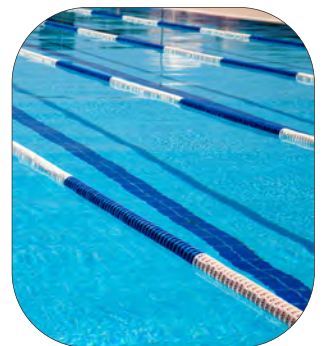
잠영경기

- 호흡잠영경기: 100m / 400m / 800m
- 무호흡잠영경기: 50m

* 강, 호수, 바다와 같은 오픈워터에서 행하는 장거리수영은 3,000~ 8,000m까지 코스가 다양하지만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 핀수영 기록은 대개 자유형 기록보다 1.3배 빠르고 움직임이 더 역동적이다. 경기할 때는 핀, 물안경, 스노클(snorkel) 외에는 어떠한 기계장치도 사용할 수 없으며 호흡잠영경기에서만 압축공기 잠수장비를 사용한다.

규격

핀은 크기와 재질의 제한이 없으나 발에 신는 형태여야 하며, 물안경은 수중에서 사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스노클은 호흡을 위한 관(管)으로,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 수는 없다. 크기는 안지름 23mm, 길이 48cm를 넘으면 안 되며, 끝을 비스듬히 자를 수 있으나 길이를 찢 때는 가장 긴 쪽을 잔다. 공식 수영장은 길이 50m, 너비 최소 21m, 수심 1.8m 이상이어야 하며 레인 수는 8개, 레인의 너비는 2.5m, 1번과 8번 레인 양 바깥쪽에는 벽과 50c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출발 방법과 반환점을 도는 방식은 일반 자유형 수영과 같다.



핀수영과 일반수영의 차이점과 매력

1. 경기장소

핀수영은 수영장은 물론, 저수지, 바다, 강 등의 오픈워터에서도 경기가 치러진다. 덕분에 여름철 이색 스포츠로 인기가 높다.

2. 장비의 사용

순수 인간 신체 능력만을 활용하는 수영경기와 달리 핀 (모노핀, 짝핀)과 스노클을 활용한다. 특히 핀은 크기와 재질의 제한이 없어 선수 개인의 체형, 주법에 맞춰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3. 속도감

역동적 동작에서 나오는 빠른 스피드는 핀수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여러 종류의 핀 중 돌고래의 꼬리지느러미 모양을 본뜬 모노핀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스노클 사용방법

마우스 피스를 입에 물고 이마 정가운데 파이프가 위치하도록 조정한다. 출발점프 또는 수영 도중 스노클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1. 물빼기 연습

우선 물속에서 스노클 안에 물을 담고 몇 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뿜는 연습을 한다. 정지동작에서의 물빼기가 숙달되면, 핀수영의 발차기 누르는 동작에서 숨을 참고 앞으로 나아가며 물을 뱉는 연습을 한다.

2. 호흡 방법

호흡은 항상 규칙적이어야 한다. 코를 사용하지 않고 입으로만 호흡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정지동작에서의 호흡이 숙달되면, 발차기 하면서 호흡하는 연습을 이어간다. 호흡 간에는 상체를 고정하고 발차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다.



How to Finswimming

모노핀 신기

모노핀은 두 발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일단 신고 나면 걸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핀은 출발대 옆에서 신고 곧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핀은 발 크기에 꼭 맞아야 추진력이 손실되지 않고 전달된다. 간혹 격하게 핀을 차거나 장거리 헤엄을 하는 경우 발등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전용 버선을 착용하도록 하자.

모노핀 발차기 연습

핀을 착용하고 발차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크고 단단한 물갈퀴를 사용하면 발목은 물론 무릎과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초보자는 작고 부드러운 핀을 이용해 적응해야 한다. 근력이 충분히 붙고 허리와 무릎을 유연하게 움직일 정도로 숙달된 후, 단계적으로 핀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좋다.

1. 앉아서 차는 연습

수영장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하체와 핀을 수면과 수평하게 두고 핀을 차는 연습을 한다. 동시에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고 상체를 올바르게 펴는 연습도 병행한다. 무릎과 발목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허리와 허벅지를 움직여 핀의 끝까지 힘이 전달되도록 한다.

2. 물속에서 차는 연습

물속에 들어간 상태로 양손을 꼭 펴서 수영장 가장자리를 잡는다. 허리와 허벅지를 이용해 킁을 하되 물을 누르는 준비동작과 누르는 동작을 통해 상체에서 하체로 힘이 전달되도록 한다. 아울러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연습도 병행해야 한다.

3. 킁판(Kick Board)을 이용해 차는 연습

실제로 추진력을 얻는 연습을 하는 동작으로 허리와 발목의 유연성을 최대한 살려 정확한 동작을 구사하도록 한다. 앞선 두 가지 훈련법과 달리 상체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허리 동작을 중점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 상체에서 시작된 힘을 발끝까지 손실 없이 전달해 최대한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초보자의 경우 처음에는 핀을 신지 않고 자세와 리듬을 타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후 작고 부드러운 핀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수영에 사용하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크고 단단한 핀을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기본 영법 이후 배영, 횡영, 잠영 등 다양한 영법을 훈련하는 것이 보통의 커리큘럼이다. 강한 힘을 발산하는 것보다는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의 유연성이 중요함을 항상 기억하자.

슈퍼 루키부터 베테랑까지,
배구의 연대기

V리그 연대기 돌

리그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팀을 꼽자면 OK저축은행을 꼽을 수 있다.
2014/15년 시즌 당시 OK저축은행은 돌풍을 일으켰다.
패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 사이에 시몬이 합류하자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난 것이다.
그렇게 팀은 창단 2시즌 만에 챔피언결정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저자 김효경 류한준 출판사 북곰마

“프로배구가 닳을 올린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배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정과 지식을 전한다.”

배구는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에게 쳐서 상대방 팀의 코트에 떨어지게 하는 스포츠다. 우리나라에서는 1916년 YMCA 고문인 반하트가 청년 회원들에게 소개한 후 1917년 첫 경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5년 정규 프로 배구 리그가 출범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팬에게 사랑받았다. 특히 여오현, 하현용 등 스타 플레이어들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그 외에도 리그를 거쳐 간 많은 선수가 배구의 역사를 쌓아 왔다. V리그는 남성부, 여성부로 나뉘며, 앞서 발간된 『V리그 연대기』에서는 여성부를, 『V리그 연대기 돌』에서는 남성부를 다루고 있다. 리그 초창기를 이끈 3인 체제의 박철우, 김요한, 문성민. 리그의 활력을 더 해준 레오와 시몬, 케이트. V리그의 최정상인 봄배구에 진출하기 위한 여정을 담은 것이 이 책이다.

V리그의 성장은 배구 구단의 성장이기도 하다. 총 8개의 구단이 지금의 V리그를 이끌어왔다. V리그의 시작을 함께한 한국전력부터, 신생 구단인 우리카드까지. 각 팀마다 V리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 경기를 팬들에게 선사했다. 대한항공은 4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고, 삼성화재는 8연속 우승으로 절대 강자 자리를 굳혔다. 우승뿐만 아니다. 연장전의 짜릿함을 보여주는 플레이오프, 예상치 못한 역전승 등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경기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다. 두 팀은 ‘V-클래식 매치’라고 불릴 정도로 V리그의 큰 화젯거리다.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3년 동안 우위를 가리지 못하다가, 2008년 삼성화재가 우승하게 되면서 한동안은 삼성화재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현대캐피탈이 왕좌를 차지하기 시작한 후 지금도 두 팀은 앞치락뒤치락하며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

배구의 역사는 계속 쓰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OK저축은행 구단의 부산 이전이다. 배구팀이 없던 부산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2014/15 시즌에 돌풍을 일으켰던 팀인 만큼, 부산에서 활약 또한 기대가 크다. 배구를 사랑하거나, 또는 흥미가 있는 부산인이라면 OK저축은행의 행보를 주목해봐도 좋을 것이다. 땀으로 젖은 여름, 강렬한 스파이크와 블로킹의 세계로 빠져보자.

OK저축은행 옷맨 역대 성적

시즌	결과
2013/14	6위
2014/15	우승
2015/16	우승
2020/21	3위
2023/24	준우승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 개최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와 상위권 입상 기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7월 9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 광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D-100 부산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출정식은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개최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되새기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정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임직원을 비롯해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 회원종목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품 증정, 인사 말씀, 지도자 대표 나드리 감독(테니스)과 선수

대표 이완희(볼링)의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인화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폭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훈련에 전념해 온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향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사·도 대항 육상경기대회 겸 육상 프레대회 개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및 운영 시스템 최종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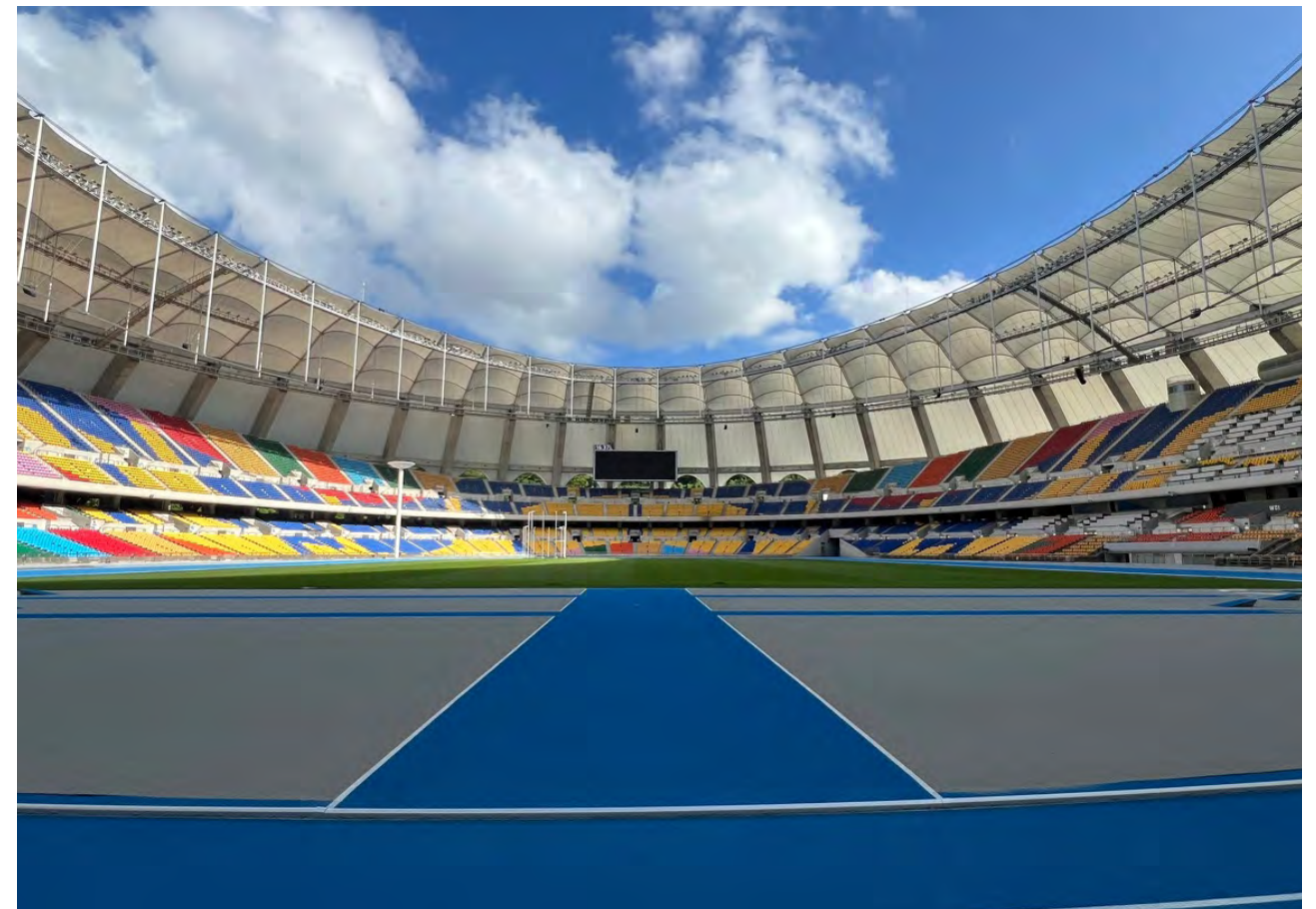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는 7월 26일(토)부터 28일(월)까지 ‘제4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사·도 대항 육상경기대회’를 겸한 ‘육상 프레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육상 프레대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경기가 열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의 시설 전반을 최종 점검하고, 대회 운영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대회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대회 시 발생할 만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여,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프레대회 개최를 통해 각종 제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7일간, 부산 전역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이다.



2025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개최 체육인재 육성 및 꿈나무선수 성장 도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미래의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꿈나무선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 31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2025년 부산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지원 방법을 선별 추천 지급이 아닌 부산대표 꿈나무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2025년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입상자 전원에게 최대 60만 원의 장학금

을 전달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육성사업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국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의 성적이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부산선수단은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대회 참가 이래 최다 메달(105개)을 획득하였으며, 체조 종목 여중부(부산체중 오지원) 21년 만에 금메달, 농구 종목 남초부(성남초) 28년 만에 금메달, 배구 종목 여중부(경남여중) 창단

이래 첫 금메달 획득 등의 성과도 얻었다. 또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빙상, 스키 등의 종목에서 꿈나무선수들이 활약한 덕분에 부산선수단은 18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 5위를 달성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부산광역시 체육국장,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교육청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및 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다 함께 미래 체육인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육대회,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부산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개최

7월 19일(토),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가족캠프)’이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관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해목재문화박물관에 방문하여 목재 유물 및 현대 목공예 작품 관람, 목공예 체험 등 좋은 추억을 쌓았다. 또한 김해롯데워터파크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즐기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서구체육회



2025년 어린이체능교실 진행

7월 19일(토), ‘2025년 어린이체능교실’이 바운스트램폴린파크부산과 광안리해양레포츠펀터에서 진행되었다. 체능교실은 서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신청 시작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활동은 오전과 오후 두 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실내에서 액티비티한 활동을 통해 균형감각, 순발력, 협응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오후에는 광안리 바다에서 해양레포츠 체험이 이어졌다.

동구체육회



2025년 주5일제 실천광장 및 청소년체련교실캠프 개최

7월 19일(토), ‘2025년 주5일제 실천광장 및 청소년체련교실캠프’가 해운대 엘시티에 위치한 클럽오아시스에서 개최되었다.

동구 관내 거주 가족, 직장인, 청소년 등 총 88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테마를 즐기면서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또한 행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며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영도구체육회



2025년 제2차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회

7월 22일(화),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사 위촉장 수여, 3건의 보고사항과 2건의 안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한영익 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2025 부산진구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련교실 진행

7월 22일(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2025 부산진구 어린이 체능교실 및 청소년 체련교실’이 진행되었다. 이날 초등학생 35명, 중학생 40명 등 총 75명이 참여해 수상 안전 교육을 통해 수상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워터파크 기구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였다.

학생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 2025년도 2차 이사회 개최

7월 9일(수), 동래구 공공지원센터에서 ‘2025년도 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동래구체육회 정길호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 이사회 결과 포함 총 5건의 보고 안건 상정, 동래구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등 1건의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졌다. 정길호 회장은 새롭게 위촉된 부회장 및 감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동래구체육회를 더욱 발전시키고 지역 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남구체육회



2025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워터파크 체험 진행

7월 20일(일),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2025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워터파크 체험’이 진행되었다. 남구에 거주하는 가족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물놀이를 하기 전 준비운동으로 굳은 몸을 풀었고, 그 덕분에 행사는 부상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북구체육회



2025년 생활체육지도자 해양스포츠 안전지도사 교육 진행

7월 11일(금), 사직실내수영장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교육장에서 ‘2025년 생활체육지도자 해양스포츠 안전지도사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해양스포츠 안전에 대한 이해, 해양스포츠 안전 예방법 및 대처법,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북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총 6명이 해양스포츠 안전지도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3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4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대회 개최

7월 20일(일), 기장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4회 해운대구청장배 주짓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을 비롯한 사·구 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뽐내었다. 치열한 경기 끝에 MK가온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팀와프, 3위는 DCBS가 수상하였다.

사하구체육회



제19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 개최

7월 5일(토),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9회 사하구청장배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사하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선수들의 열정과 패기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금정구체육회



주5일제 실천광장 사업 일환 경주 방문

7월 19일(토), 주5일제 실천광장 사업의 일환으로 금정구 거주 13가정을 모집하여 경주 캘리포니아비치를 찾아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 출발에 앞서 윤일현 금정구청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13가정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문화를 실천하고 주5일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기원 D-100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7월 9일(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 개최 100일 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연제구청에서 출발하여 중앙대로를 따라 걷고 부산광역시청 시민광장에 집결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체육인 및 연제구민이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었다.

수영구체육회



2025 수영구 여성특화체육교실 운영

7월 27일(일)부터 수영구 관내 거주 1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특화체육교실이 운영되었다. 여성특화체육교실은 30여 명을 대상으로 SUP&SUP요가, 대기구 필라테스 등 2개 종목이 8~18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성특화체육교실은 여성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지원금 전달식 진행

7월 15일(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지원금 전달식’이 사상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사상구 소속 선수들은 양궁, 수영, 조정, 육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달식을 통해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지원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비롯해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과 김성중 부회장이 참석하여 사상구의 우수한 체육 인재들을 격려하였다.

기장군체육회



2025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진행

7월 12일(토), 울산 나사리해수욕장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해양 스포츠체험교실이 개최되었다. 이번 체험교실은 관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모집된 20가정 60명이 참석해 해양 활동의 묘미를 함께 즐겼다.





꿈나무체능단 여름 캠프 개최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7월 25일(금)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다. 꿈나무체능단은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경험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워터슬라이드 등을 체험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여름 캠프를 마무리한 꿈나무체능단은 2주간의 여름방학을 시작한다.

부산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 공사에 따른
임시휴관 안내**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노후화 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코자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및 휴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관기간 ◆
25.09.01~25.12.31.
(재개관 : 2026.1.2. 예정 / 공사기간에 따라 휴관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내용 ◆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기계실비
외 기타 각종 시설 점검 및 정비

◆ 등록안내 ◆
2026년 1월 회원등록은 2025년 8월 등록회원 기준으로
2025년 12월 중 기존회원 재등록 후 신규접수가 진행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및 SMS를 통해 공지
예정이나니 참고바랍니다.

※ 개인사물함 물품은 **2025. 8. 30(토) 18시까지 꼭!!!**
회수해주세요. (재개관 후 기존 개인사물함 사용유지)
기한 내 미회수시 폐기처분됩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임시휴관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9월 1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4개월간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임시휴관한다. 이번 시설 개선 공사는 2011년 10월 개관 이후 14년 차에 접어든 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기계설비 외 각종 시설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26년 1월 2일(금) 재개장 예정이며,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관내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비상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한다. 응급 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수상안전 교육, 생존수영 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수중 위기 대처요령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INFORMATION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7월 18일(금), ‘2025 부산 달빛 올빼미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시민참여형 야간 스포츠 행사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7월 18일(금)과 8월 1일(금)에 각각 남자 준세미오픈부, 여자 개나리부가 진행되었으며, 영남권 128팀 256명이 참가하여 무더위도 날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14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아이스하키리그 개최

7월 31일(목)부터 8월 3일(일)까지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제14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아이스하키리그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15세 이하 유소년으로 구성된 초등부 19개 팀, 중등부 5개 팀이 참가하였다. 부산은 U-15 준우승(브레이커스), U-12 디버전 준우승(동성초)과 3위(마리나, 남성초)를 차지하였다. 부산실내빙상장은 비인기 종목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각종 대회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산실내빙상장



개관 1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신평장림체육관이 2025년 7월 1일자로 개관 1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1주년 당일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일상에 기여하는 열린 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박원욱병원 의료 협력 MOU 체결

7월 25일(금),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와 박원욱병원이 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 박원욱병원에서 적극 협조하여 치료해 줄 예정이다. 스포츠 단체와 병원 간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스포츠 동호인 양성과 더불어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2

‘BUSAN SUPER CUP 전국 피구대회’ 개최

7월 13일(일),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에서 ‘BUSAN SUPER CUP 전국 피구대회’가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30여 개팀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피구대회로, 부산광역시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후원, 대한피구연맹과 부산광역시피구연맹의 심판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본과의 피구 교류전 및 국제 대회를 준비 중이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3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사업 선정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기초·비인기 종목, 체육취약계층, 지역특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해 수영과 아이스하키를 체험할 수 있는 ‘아쿠아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체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애프터스쿨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프로그램 ‘요트 세일링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스포츠 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부산 지역의 요트 종목을 활성화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4

제6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출전 및 입상

7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진행된 ‘제63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 부산거점스포츠클럽 소속 펜싱 전문선수 10명과 육성선수 4명이 출전하였다. 선수들은 심중한 감독과 오지는 코치의 코칭하에 꾸준한 훈련으로 실력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남초에베 3~4학년 개인 1위(김수인), 여초에베 3~4학년 개인 3위(장아린), 남초에베 5~6학년 개인 3위(이승현), 여초에베 5~6학년 개인 2위(장혜린), 남초에베 단체전 3위, 여초에베 단체전 3위 등을 입상하였다. 이번 성과에 힘입어 펜싱 전문선수들의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 <금빛 훈련일지> 인터뷰 대상은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입니다. 2024-2025 H리그에서 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부산시설공단 핸드볼팀의 최종 순위는 몇 위일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2 다가오는 9월, 부산의 상징적인 해상교량을 배경으로 한 '2025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중 투어에 해당하는 코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광안대교 ② 세병교 ③ 부산항대교

3 커다란 '이것'을 착용하고 허리를 움직여 수중을 나아가는 경기이자, 맨몸 수영의 한계를 넘어선 속도감과 효율을 추구하는 스포츠인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수구 ② 다이빙 ③ 핀수영

『부산체육』 제80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① 육상 2. ③ SUP 3. ② 100일	송*진(4363) 조*화(7654) 송*수(4370) 설*경(1626) 정*음(0516)
	김*혜(9321) 정*린(6960) 배*연(6622) 김*우(5616) 김*무(7570)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팀은 지난해부터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며, 플레이에 속도를 더했다. 올해는 베테랑 선수들을 보강해 '빠른 핸드볼'의 리듬을 능숙하게 조율하는 팀으로 거듭나고자 했다. 그 결과, 신 감독 부임 첫해인 2024-25 H리그에서 팀은 2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최종 ○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금빛 훈련일지> 11쪽

2 칠칠코스 기준, 각 지점은 해상교량 4곳, 지하차도 2곳, 터널 1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상교량 4곳은 ○○○○, ○○○○○, ○○○○, ○○○○○이며, 나머지 3곳은 신선대지하차도, 장평지하차도, 천마터널이다.

<Sports is Busan> 24쪽

3 ○○○ 기록은 대개 자유형 기록보다 1.3배 빠르고 움직임이 더 역동적이다. 경기할 때는 핀, 물안경, 스노클(snorkel) 외에는 어떠한 기계장치도 사용할 수 없으며 호흡잠영경기에서만 압축공기 잠수장비를 사용한다.

<종목 소개> 39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8.14.(목) ~ 8.31.(일)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2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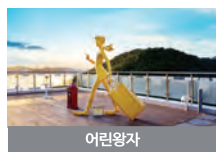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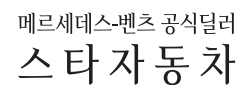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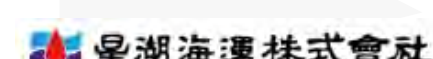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부산진성

조선 성종 21년(1490년) 부산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 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 속을 산책하는 도시, 부산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두근두근 가슴 뛰는 역사의 현장인 부산!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 국경이며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

- 남요인후(南微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 -

부산진성에 가면 볼 수 있는 글귀로
부산은 국가 수호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이며
한반도의 관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역사의 도시

부산을 사랑합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